

이순신 장군, 왜 ‘불멸’ 인가

정연진
(베터컴&컨설팅 대표)

KBS 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은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방송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엑스트라 배우들을 동원하여 사실감 있는 전투장면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조선 수군과 왜군 수군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장면과 조선 수군의 용단폭격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같이 처리한 장면 등을 보면서 우리 드라마의 수준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 매우 흐뭇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서울의 중심부 태평로 한 복판에 큰 칼을 차고 우뚝 서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어쩐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존재였다. 왜 서울의 한 복판에 한국의 다른 위인이 아니라 왜 장군이 동상이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초등학교 시절 따라부르던 충무공의 노래... 왜 장군을 ‘민족의 태양, 역사의 면류관’ 이라 불러야 하는지 내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이 충무공에 대한 칭송은 박정희 정권이 의식적으로 국민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내세운 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80년대에는 이순신의 업적을 평가절하하고 원균맹장론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등장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실도 잘 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군사적으로는 열악하기 짝이없는 수적열세에도 불구하고 23번 출전하여 23번 모두 승전을 거둔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기록을 세웠고, 특히 한산대첩은 세계 4대 해전중의 하나로 꼽힌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왜 장군이 ‘불멸의 장군’ 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의 묘미는 역사속의 영웅을 우리들 곁에 가깝게 다가오도록 만든데 있다고 본다. 교과서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성웅이 ‘인간 이순신’ 으로 거듭난 것이다. 잠든 평졸 군사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따뜻한 부성애, 칼에 새겨진 ‘그칠 지 창과’ 를 보며 칼을 쓰지 않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골똥히 생각하는 모습. 왜군에 살륙당하고 굶주림

과 전염병에 죽어가는 백성에 모습에 고뇌하고 아파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애뜻하고 비장하게 그려진다.

드라마는 우리에게 역사에 이름 한줄도 남기지 못한 수 많은 일반 군사들의 피와 땀을 상기시킨다. 하갑판에서 어깨가 비틀어지고 손이 부르르도록 노젓는 격군들의 손에서 피가 맺혀 흥건히 흘러나오는 장면을 클로즈업하면서, ‘한산대첩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지만, 그것을 완성한 것은 모진 훈련을 이겨내고 한마음으로 싸운 일반 병졸들’이었음을 상기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백성들과 일반 병졸들의 고통을 자기 몸보다 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이 그의 23전 23승 승리의 비결인가 아닌 듯 싶다.

한반도와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에 불타올랐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패하게 된 것도 결국 그는 일본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수군의 계속되는 승전으로 전쟁이 쉽게 종결되지 않자, 히데요시는 자객들에게 암살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된다. 마침내 한 정적은 그를 암살하려 했다가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지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히데요시, 그대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적을 모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나라 일본의 백성이다!” 라고 호통친다.

장군이 얼마나 인명을 소중히 생각했는지는 명나라 사신의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운덕’이라는 명의 사신은 추운 겨울밤, 통제사 이순신이 왜군포로 진영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랐다가, 어린 왜군 포로에게 명심보감을 읽어주듯 장군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는다. 10살에 잡혀온 왜군 포로가 15살이 되기까지 장군은 어린 포로를 따듯이 감싸며 장군이 간간히 책을 읽어주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조선장수대 왜군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로 보였다. 적국의 포로에게 저러하다면, 그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 무엇으로 나타낼수 있겠는가” 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웅이 등장했다 사라져가지만, 이순신 장군과 같이 인명을 천명으로 여기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만이 진정한 영웅으로 역사에 오래 오래 남을 수 있고 바로 그 정신이 우리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불멸’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